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충남 사업장 현장점검·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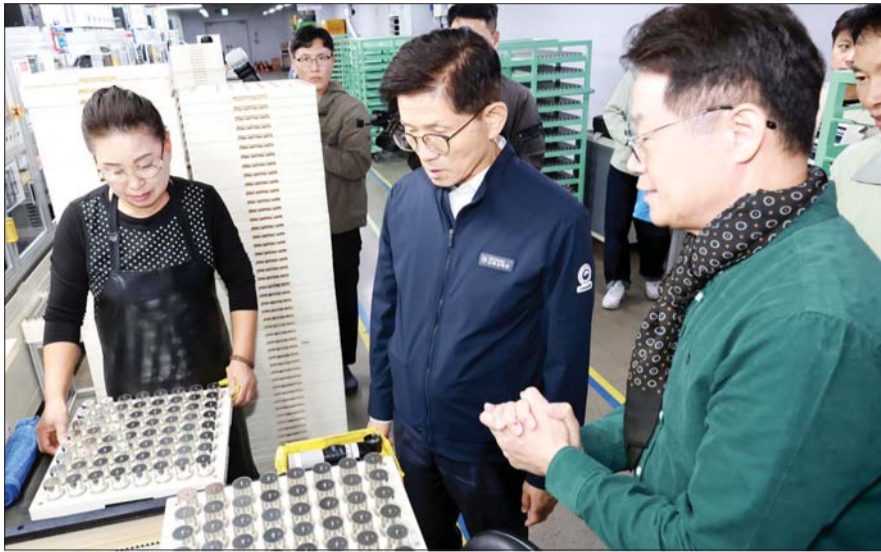
# “자기규율 예방체계 중요… 화재방지 시설 최대 1억 지원”

화재·폭발 예방 우수 사업장 방문  
전지 제조·취급업 안전가이드 마련  
“안전경영은 가장 똑똑한 사업 투자”

정부가 기업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전지 제조·취급업 화재·폭발 사고 대비 안전가이드’를 마련했다. 화재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도 확대해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충남 당진 합덕읍에 자리 잡은 화재·폭발 예방 우수 사업장 ‘비츠로셀’을 방문해 현장 순회점검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해답은 기업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확산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매년 8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노동자의 생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충남 당진 합덕읍에 자리 잡은 화재·폭발 예방 우수 사업장 ‘비츠로셀’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사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츠로

셀은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선도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전지 업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많은 모범사례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전지공장 화재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김 장관이 이날 방문한 리튬일차전지 제조업체 비츠로셀은 유사한 화재 사고에 대한 대응에 따라 결과가 갈린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장승국 비츠로셀 대표는 “인명 피해를 막는 것을 안전관리의 영(0)순위로 삼고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근로자들의 피난이 쉽도록 모든 작업장을 단층으로 건립하고, 피난에 장애가 없도록 형광 피난 유도선을 설치했다. 전지공장의 특성상 화재 시 초기 진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초동 대응 없이 즉시 대피할 구역을 설정했다. 또한, 피해 확산 억제를 위해 건물 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24시간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비츠로셀의 우수사례를 토대

로 ‘전지 제조·취급업 화재·폭발 사고 대비 안전가이드’를 마련해 전지 제조 기업의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지침화했다.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가스검지·경보장치와 격벽 설치, 비상대응체계 마련 등 중소기업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화재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오는 2025년부터 비츠로셀과 같이 대피로나 비상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각적 환경을 개선하거나,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격벽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김문수 장관은 “안전경영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가장 똑똑한 투자”라면서 “중소기업이 화재방지 조치를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 환경부-농식품부, 가축전염병 등 재난대응 맞손

가축·야생동물 질병 사전 예방  
ASF 백신 상용화 등 협력 강화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21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재난대응 상황실에서 ‘가축전염병 및 야생동물 질병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축과 야생동물 간 감염되는 질병의 사전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부처가 현재의 협업 상황에서 더 나아가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을, 농식품

부는 가축전염병을 각각 예방·관리하고 있으며, 현재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협조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 간 연계 감시(모니터링) ▲유전자를 포함한 예방 정보와 관련 기반시설의 공동 활용 ▲가축전염병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 역학조사 ▲ASF 백신 개발 및 상용화 등이다.

양 부처는 야생매체지에 대한 돼지열병(CSF)·구제역 검사와 고라니에 대한 가성우역 검사 등 가축과 야생동물 간 감염되는 질병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할 예정이다.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농장 정보와 해당 농장 주변 야생동

물 질병 예방 계획을 연계해 질병 확산을 예방하는 데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ASF 백신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백신 상용화를 위한 등록 및 허가 절차에 협력하며, 야생동물 예방에 상호 협조할 예정이다. 수집된 예방 정보는 적극 공유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활 속에서 사람과 야생동물의 접촉이 점차 늘어나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신종 감염병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이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에 대응하는 양 부처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송미령 장관 “쌀,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수급관리”  
1일 오후 충남 서산의 한 산지유통 업체를 찾아 수확을 마친 벼 낱알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송 장관은 “올해는 과거 어느 해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관리를 하겠다”며 예상 쌀 초과생산량을 넘는 20만톤 규모의 시장격리를 다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 국립생물자원관

## 생물자원 활용 기업 민간 자금조달 지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22일 대전 유성구 호 텔ICC컨벤션에서 ‘생물자원 활용기업에 민간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국립생물자원관 등 환경부 소속 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 4곳(국립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이 생물자원의 사업화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투자유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녹색산업 지원 차원에서 조성한 미래환경산업펀드 운영사를 포함한 7개 민간투자사가 10개 기업과 일대일로 투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회 이후에는 제3차 기업간담회도 열린다. /김대환 기자

## 농진청,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 ‘구슬땀’

작년 46종 개발… 기관 협력 강화

농촌진흥청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해, 중앙부처·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와 연계하는 동시에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에 나서고 있다.

치유농업이란 식물과 동물, 자연경관과 같은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해 심리·정서 지원, 신체기능 증진 등에 목적을 둔다. 고령층, 장애인, 아동·청소년, 스트레스 고위험 직군 등이 대상이다. 농진청은 지난해 기준 총 46종의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대표적으로 ▲의식주로 즐기는 텃밭 정원 이야기 ▲벼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이 있다.

권재한 농진청장은 21일 경기 양평에 자리한 치유농장(천연재이꽃뜰)을 방문해,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치유농업



치유농업활동의 모습. /농촌진흥청

프로그램 적용 사례를 점검했다. 또 지역장애인복지기관, 치유농업연구회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치유농업 활성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권 청장은 “치유농업 농장주 역량 강화 교육을 늘려 치유농업 서비스 품질 향상을 꾀하겠다”며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업무상질병 특진 164일 소요… 5년새 2배 ↑

### 2024 국정감사

근골격계질병 소요일수 급증

올해 업무상질병 특별진찰(특진)에 걸리는 소요일수가 164.1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2019년의 80.3일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진 의뢰건수는 8월 기준으로 2만 1022건에 달했다. 특진 소요일수는 164.1일로, 지난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진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보다 약 2주 반(18.6일) 더 기다려야 하며, 5년 전인 2019년보다 약 3개월(83.8일) 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근골격계질병의 특진 소요일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질병의 특진 소요일수는 148.4일로, 전년 대비 약 1개월(30.5일)



증가했으며, 5년 전보다 거의 3개월(89.8일) 더 늘어난 수치다. 소음성 난청의 특진 소요일수의 경우 180.1일, 전년 대비 1주 이상(8.8일), 5년 전 대비 2개월 이상(65.6일) 증가했다.

특진 의뢰건수 대비 진찰완료건수 비율은 2019년 99.9%였지만, 2020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76.7%까지 감소했다. 2021년 80.2%로 잠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다시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특진 소요일수가 늘어나면 휴직 기간이 짧고 휴직 보호 대책이 없는 노동자는 치료를 포기한 채 아픈 몸 그대로 일터에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업무상질병을 앓고 있는 노동자가 특진 지연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환 기자